

400만 민방위대장·대원 여러분!

경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민방위 운영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소방방재청장 박연수입니다.

민방위는 지난 75년 창설 이후 우리 선배님들의 노력에 힘입어 크고 작은 국가적 위기상황과 재난에 슬기롭게 대처하며 우리 스스로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남북관계의 변화, 광역화되고 복잡해진 재난 등으로 민방위는 새로운 변화의 요구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소방방재청에서는 지난 한해 다각적인 검토와 연구, 그리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에서 작동하는 민방위」 실행전략을 마련하였고, '10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입니다.

민방위 대원 여러분들도 평소 공감하시듯이 민방위에서 가장 개선해야 할 '교육분야'는 여러분의 피부에 와 닿게 획기적으로 바뀌나갈 계획입니다.

지루한 강의식 집합교육에서 탈피하여 소화, 심폐소생술, 완강기, 방독면 사용 등 실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기술기능 연마에 초점을 맞춰 실시될 것입니다.

아울러, 연중 실시되는 민방공 대피훈련, 재난대비훈련 그리고 물놀이·지역축제 안전점검, 산불 예찰활동 등에 여러분이 선택하여 직접 참여하고 민방위 임무를 실습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입니다.

민방위대원 여러분! 민방위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단순히 민방위교육의 대상이 아니며 민방위 훈련, 폭설·태풍 등 재난현장에서도 방관자나 참관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구성된 민방위의 정예요원(精銳要員)입니다.

앞으로도 민방위가 우리의 안전과 이웃의 행복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민방위대장·대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경인년 한해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 하시길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경인년 새해 아침에

소방방재청장 박연 